

기독교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정 정 숙
(총신대 교수)

오늘의 가정문제에 대한 논의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가정문제 또는 가정교육문제에 대한 특집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독교 가정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 있어서의 바른 인간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상 기독교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로 기독교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아내의 역할과 관계되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내의 역할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내와 남편은 상대적인 존재로도 피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의하려는 문제의 핵심을 이와같은 근거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먼저 기독교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후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기독교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오스카 슈크트의 표현을 보면 그는 가정 교육의 기능을 4 가지로 설명한다.

그 하나로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기관임을 신명기 6 장 4 절~9 절에 규정된 쉼마 교육에서 그 내력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교육시킨다면 물질만능, 황금만능 시대인 현대에도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교육적인 명령을 찾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신 6 : 4 ~ 9 에 나오는 말씀이다.

가정은 어린이를 교육하는 첫 기회를 제공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 기관이며 부모님이 교사이고 학생은 자녀들이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훌륭한 성장은 교사인 부모에 달려 있다. 이에서 기독교 가정이란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신앙 공동체이며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된다.

두번째로 가정이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기관인 동시에 인격의 도장이다. 흔히 가정교육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가정교육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가정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을 잘 받아도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찾기 힘들고 같은 내용으로 30명의 학생들에게 강의했을 때 1~2년후 그들을 평가해 보면 가정교육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가정은 인격의 도장으로 인간의 성격형성과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듯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인격형성에 가정은 도장의 구실을 한다. 오늘날 특히 유아교육이 강조되는데 유아교육은 갓 태어나면서 부터, 조금 빨리 시작하면 태교에서 부터 시작해서 만 6세~8세까지에 있어서 어린이 인격의 80~90%가 형성된다고 본다. 그러면 10~20%를 차지하는 학교 교육에 비해 가정은 인격의 도장이고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인데 사실 오늘날은 인격형성이든지 신앙인격 형성 보다는 미술·피아노·용변·속기·주산 등의 학원을 순례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이 진정한 인격의 도장이며 또한 인격의 훈련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서의 교훈처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세번째로 기독교 가정은 교육의 방파제이다. 지상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개인으로 조직되는데 자세히 말해서 기독교 가정을 토대로 형성된다. 이렇듯 수많은 기독교 가정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교회가 교회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모체가 되어 바른 신앙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교회 발전적인 가정은 악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여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의 침범을 막아내는 장벽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막아내는 승리자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런데 흔히들 주일학생으로 교회의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교육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교회에 보내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회 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먼저 훈련이 잘된 다음 교회와 연결시켜 교회와 가정이 합해지고 덧붙여 학교, 사회까지도 합해질 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가정은 또한 교회의 방파제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킴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바르

게 자라며 죄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네째로 기독교 가정은 국가의 초석이다. 국가는 가정이라는 단위집단을 근거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최소 집단인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며 국가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신앙과 인격의 공동체이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도 인격이나 생활이 변화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것은 제한된 시간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은 24시간을 거의 함께하는 공동체이므로 자연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중화되어 간다. 그러므로 사실상 가장 좋은 교사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배우자이다.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교전11:3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다”와 골3:20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에 의해 권위와 책임의 명령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의 머리이신 하나님은 이 원리에 따라서 명령하시고 가족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가정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책임을 지고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곧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성경의 원리보다 인간을 높이거나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가정문제의 궁극적인 치료법은 성경의 원리에 복귀하는 것 뿐이다.

아내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오스카 슈크트의 말을 통해 4가지로 알아 보았고 또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권위와 책임으로 요약하여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로 설명하였다. 그리

코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사실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쉬운 일인 것 같다. 이 책임과 권위가 바르게 실시되면 가정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 보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며 자신들의 수고가 다 처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또한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고생이 아니고 남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남편의 역할을 세가지로 표현해 볼 때 첫째로 남편은 주관자의 역할을 한다. 성경은 고전 11:3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 자연의 지배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로 제시하셨다. 그리고 창 2:24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와 함께 창 2:18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돕는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내는 주관자인 남편을 돕는 배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머리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온 몸 전부가 영향을 받는 것 처럼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오늘날에는 여성상위로 아버지의 권리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걱정들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여성권의 상위로 남성권이 꺾일적으로 하락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계에 있어서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실 남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기 때문에 남성권의 하락 문제가 생긴다.

1960년대 교육계에 선풍을 일으킨 그림이 있는데 이는 유치원 아동이 가족을 그린 것이었다. 어머니를 중앙에 크게 그리고 자기와 형제들을 그 옆에 조그맣게 그렸고 아버지는 뒷면에 아주 조그맣게 그렸다.

이것은 자기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그린 것인데 여기에서 아

버지는 이른 출근, 늦은 귀가로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림의 뒷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것에서 올바른 교육에 관한 문제와 주권상실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실제로 오늘날은 국민학교 선생의 80%가 여성이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집에서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까지 여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아동은 여성답게 자랄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육계의 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가정의 비극 중 한 면을 보여주고 또 한국교육계의 비극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림은 가정의 의무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등을 제시해준다. 그런데 60년대에 그 그림이 나왔을 때는 소수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가정, 특히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도 항상 분주하신 목사들의 가정이나 장로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맡고 열심히 일하시는 제직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런 것에서 남편은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호주는 물론 아버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을 어머니가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바른 원리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두번째로 남편의 역할은 교육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는데 구약의 신 6:4~9의 말씀과 신약의 엠 6:4의 말씀에서 “아버지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가정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셨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어머니의 교육적 책임을 회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책임을 부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남편의 교육자적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점차로 아내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해 모든 집안 문제들을 아내

에게 전달시켜 버리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와 함께 남편에게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가정을 교육자, 영적 교육자로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벰전 2 : 8의 “왕같은 제사장”이란 남편은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교육적인 일차적 책임을 지며 특히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주관하여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가 부재하신 가운데 어머니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 가정에서 남편은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교육자의 사명을 가진다.

세번째로 남편에게는 부양자의 역할이 있다. 이것이 흔히 남편들이 내세우는 바이며 명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의 지나친 강조로 주관자와 교육자의 역할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역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므로 기쁨과 감사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 3 : 17, 18에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 주셨으므로 남편은 땀흘려일해야 하며 처자를 부양해야 한다. 이것 역시 귀찮은 것이기 보다 남편의 자랑이요 긍지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길이므로 기쁨과 감사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부양자로서 처자를 외부의 적에서 보호하고 위협에서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 부양자로서의 책임은 가장 보람있고 원천적인 문제이며 가정의 머리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제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아내의 역할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교육서 중에 아내의 역할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궁극적인 목표

는 현모양처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학진학 여학생 중에서 현모양처를 목표로 한 학생도 가끔 있다. 유교 사상에 입각한 현모양처상은 부부·효친·모의·부의·검소에 핵심을 두어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며, 부모들께 효도해야 하고, 어머니로서의 의를 갖추어야 하고, 아내로서의 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가정과 친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검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내에게는 네가지 행위의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부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절개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부언으로 말을 가려 하며 굵은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는 언어생활을 말하고 셋째는 부경으로 부드러운 얼굴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넷째는 부공으로서 여성으로 가정의 살림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규범으로 현모양처 상을 말하며 여성으로서 해야 할 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이러한 유교적인 문화 배경 아래에 살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100% 기독교 가정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아내의 역할을 몇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보조자적인 역할이고 둘째는 조정자적인 역할 셋째는 교육자적인 역할 넷째는 관리자의 역할이다.

이 네가지로 기독교 가정의 아내의 역할을 정의해 본다. 먼저 보조자의 역할을 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반발하며 성경이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말씀하시므로 아내는 보조자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무리 반발이 있을지라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조명하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규정해 나가야 한다. 창 2 : 18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므로 보조자로서 아내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아무리 여성의 힘이 강한 세상이라도 아내는 주관자가 아니며 보조자인 사실은 변치 않는다.

이것은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이다. 그리고 남녀의 성의 차이는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아니며 또 아내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규정상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성경은 아내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데 엡 5 : 22~24 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복종이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권위나 힘에 겸손하고 슬기롭게 순복(중)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위신을 하락시키는 것이기 보다 교회로 하여금 더욱 영광스럽고 존귀케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성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것이기 보다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러면 보조자인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이에 대해 5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영적인 보조와 도덕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덕적 보조,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정서적 보조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신체적 보조를 통해 육적 생활과 성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동등한 입장인데 점점 남편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 부단히 발전하지만 아내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점점 퇴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

고 무슨 일이든 밖에서 상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위해 대화를 통한 정신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5 가지 6 가지 측면의 효과를 3 가지로 다시 말해보면, 먼저 아내는 보조자의 역할을 행해야 하는데 신자들은 특히 영적인 보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과 보다 구체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남편이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인으로, 생활인으로,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바로 생명을 낳게 하는 힘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헌신자의 생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야 말로 아내의 보조자적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덧붙여 영적인 보조자로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불신자, 초신자 남편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남편도 역시 도와주어야 한다.

남편의 생활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읽게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20세기후반에 산다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집회 이외의 그리고 생활의 시간 중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하는 면들을 매일 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영적인 면에서도 아내는 역시 보조자임을 기억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항상 성경의 원리 대로 생활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보조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조자의 역할에서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육적인 보조이다. 다른 말로 신체적인 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창 2 : 24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다.

아내가 남편을 육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곧 한 몸이 된 아내의 역할이다. 먼저 일상 생활을 통해 보조하여, 남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

러 가지 아내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간혹 교회일이나 산기도에 열심인 성도 중에서 가정살림은 속된 것이고 세상일이라고 외면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정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땅히 여성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현명한 신자들은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또는 기쁨 때만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쁨과 찬송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가정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고통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나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한다면 능률도 오르고 간증거리도 많이 생기게 된다. 다음에 육적인 보조는 성생활의 보조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성은 20세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그때 창조하신 사실로서 이 성생활은 부부 안에서 허락하여진 일이며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 성에 대해 오류에 빠지는 수가 있다. 하나는 성이란 본질적으로 악하고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육체를 억제하고 금욕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성을 지나치게 고상한 것으로 보고 신성시하며 지나치게 미화하여 인간 본질의 전부인 것처럼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성에 대해서도 고전 7 : 3 ~ 5에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편을 볼 때 아내는 육적인 면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도와 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축복을 향유해야 된다. 다음 세번째로는 사회적인 보조인데 마 5 : 13 ~ 16 에서

설명해 주는데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직능을 감당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내가 보조를 해야 된다. 흔히 불신자들은 출세라는 말을 쓰며 이를 위해 열심히 상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된다. 마 5 : 13 ~ 16에 기록된 말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이므로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어둠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보조하기 위해 각 사례마다 그에 적절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때 그때 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회생활에서 기독교인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 주며 또한 아내의 보조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된 시대에는 더욱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로 아내의 역할은 조정자의 역할이다.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서 생활하고 있다. 즉 복종의 의무가 아내에게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호존중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며 강제적인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률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들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아내의 조정자적인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더욱 이 기능이 요구 되는데 이 조정자, 다른 말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으로 감당해야 한다. 대부분 조정자 혹은 화해자라 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기능을 내세우기 쉽다. 그런데 성경은 빌 2 : 5 ~ 9에 이 화해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기자랑이나 과시에 빠져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쉬우므로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죽어야만 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편을 존경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조정해야 한다.

비록 남편의 판단이 그릇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유스럽고 정직하게 지적해야 한다. 사랑이 깊은 아내의 판단과 지혜와 의견은 남편의 가장 귀중한 재산 중의 하나이고 슬기로운 아내의 권고는 남편의 특혜이다. 또 조정과 함께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곧 아내의 특권이고 역할이다. 다음으로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아내와 남편을 연결하는 띠이다.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질기며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계기가 된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전 13: 4~7을 음미해야 하며 특히 아내의 조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바탕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 어떤 어려움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내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정자의 역할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신자들은 사랑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무뚝뚝하나 좀 더 나아가 미소를 띠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 다음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아내로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내가 조정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연히 만나 결혼하고 사는 것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어떤 경로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조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교육자적인 역할인데 이것은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것이다. 교육의 기본 책임은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남편에게 주셨고 이차적으로 보조적인 책임을 아내에게 주셨다. 잠 22: 6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와 엡 6: 3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 12: 5~8에 징계의 말씀으로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침과 훈계와 사랑에 대한 삼중방식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잠언의 말씀 중에서 늙는다는 것은 60이나 70의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또는 ‘수염이 나도’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진다. 이것은 어릴 때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면 어른이 되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 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며, 어릴 때 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범으로 가르쳐야 된다. 고전 11: 1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

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였다. 이 말씀은 교사의 입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인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성공적인 교사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교육의 거울이고 부모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별다른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모범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얼마나 가정교육이 성공적으로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고 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가? 엄마 같은 사람이 될건가? 엄마같은 사람에게 장가 갈건가? 아빠같은 사람에게 시집갈건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다음에 가르침은 주의 훈계와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엔 훈계와 사랑인데 훈계는 삼상 3 : 13~14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교육 실패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사랑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훈계를 해야 한다. 훈계를 할 때는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책을 들어야 한다. 잠 13 : 24에서는 체벌을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체벌을 많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과 훈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버지의 엄격한 징계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아버지가 바쁜 경우일지라도 그래서 어머니의 손에 의해 체벌이 시행될지라도 따뜻한 사랑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사랑은 육체적인 표현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적인 역할을 생각해 보면 관리자 역할은 잠 31 : 10~31에서 말해주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말씀에서 관리자적 역할을 요약하면 먼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이 관리자적인 역할은 아내의 역할 중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기독교 가정에서의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근면은 기독교 가정의 삶의 방법이어야 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비록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감사하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재산의 증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재산을 증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관리자 역할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 보는 것이다.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한데 이것을 외면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에서 아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세를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그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형제임을 보여 주며, 먼저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결론으로 말을 맺으면, 이런 아내의 역할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어려운 일은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 놓고 솔직하게, 그 다음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